



[산업]  
한진 직원  
한진칼 주식  
10주 사기 운동  
06



Economy

코스피 2079.04 (-83.80)	코스닥 639.29 (-28.70)
금리 (미국 3년) 1.14 (-0.04)	환율 (원/달러) 1220.20 (+11.00)(24일)

# 벤처지원 억지정책 부실 CB-특례상장 라임사태 단초 제공

## W 코스닥 흑역사

### (上) 정부정책의 허점

600대 고전중인 코스닥 지수  
정부 벤처펀드로 유동성 공급  
자금여력 없는 기업 상환 위기

한 때 지수 1000을 향해 달려가던 코스닥 지수는 2년 새 600대로 급락해 고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더불어 코스닥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이 주된 영향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사는 자금 유동성 확보, 회계 감사 강화, 감사 선임 등 3중 고에 몸살을 앓고 있다. 총 3회 시리즈로 코스닥의 위기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코스닥 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활력을 잃은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에도 수익률이 저조하다. 지수 상승과 변동성 축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도리어 위기의 부메랑이 됐다.

24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70포인트(4.30%) 급락한 639.29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 들어서만 4.6% 하락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26.9% 하락했다.

### ◆ 정책 상품의 실패

지난 2018년 코스피 지수는 900을 돌파하며 촉포를 터트렸다. 기업 실적이 회복되는 가운데 정보기술(IT)·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기세를 몰아 코스피 활성화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로 구성된 KRX 300 지수가 탄생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많아지면 기관투자자금 유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지수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지수의 역할을 미미하다. 하락장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해당 지수는 오히려 출범 첫날 지수(1489.41)보다 13.9% 하락한 상태다.

또 KRX300 지수 출시 당시 향후 국민연금이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은 채택을 주저하고 있다. 주요 연기금 중 KRX300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도입한 곳은 우정사업본부와 공무원연금공단 두 곳 뿐이다.

(5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코로나 감염 금융시장 ‘블랙먼데이’

코스피 2079.04 코스닥 639.29  
내수경기 침체 우려에 증시 급락

코로나19 확산 공포감과 외국인 매도로 24일 주식시장은 ‘블랙 먼데이’였다. 코스닥지수는 4% 이상,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도 급락했다.

지난 주말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생산 활동 위축으로 내수경제가 침체할 것이라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이라 기대감 대신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 재난적 상황으로 번지며 세계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했다. 전 거래일보다 83.80포인트(-3.87%) 떨어진 2079.04에 거래를 마쳤다.

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음에도 7000억원이 넘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은 각각 6077억원, 1929억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이 7823억여치를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이날 낙폭은 4.06% 떨어졌던 2008년 9월 1일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더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70포인트(-4.30%) 떨어진 639.29에 장을 마감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급락폭은 증권가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분간 증시의 출렁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 덕에 지난주 초반엔 글로벌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젠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지역사회까지 감염이 번졌다”며 “지역사회까지 본격적으로 감염이 진행됨에 따라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주가 폭락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도 극에 달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39%에 장을 마쳤다. 5년물 금리는 3.1bp 내린 1.236%에 마감했다. 3년물 금리가 지난 21일 장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연 1.25%)를 밑돈 데 이어 5년물 금리도 장중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2100선 무너진 코스피

코스피가 83.8포인트(3.87%) 하락한 2,079.04로 장을 마감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1원 오른 1,220.2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 “국가적 역량 총동원”

文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대구·경북 특별한 지원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조에 ‘총력적인 방역’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는 의학 전문가 간담회로 확대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를 향해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정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정부는 비상한 경제 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해야 한다”며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황 우려를 언급하며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기 바란다. 비상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선봉에 서서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 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코로나 악재 속 주총시즌 개막

# 한진칼 경영권, 사외이사 물갈이 등 주목

오늘 미원화학 첫 주총 테이프  
3월24일 305곳 ‘슈퍼 주총데이’

지난 주말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총을 준비하는 상장사의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최악의 ‘주총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총이 대형 장소에 수백명에서 많게는 천명 이상 모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방역에 대한 부담과 함께 참석률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5일 미원화학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주요 기업들의 주총 일정이 줄줄이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3월 18일 정기 주총을 개최하며 현대차(3월 19일), LG생활건강(3월 20일), SK텔레콤(3월 26일), 셀트

리온(3월 27일) 등이 예고돼 있다.

3월 24일에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9곳, 코스닥 상장사 266곳 등 305곳 상장사 주총이 집중돼 있어 3월말까지 주총 릴레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내달 25일로 예정된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주총이다. 한진칼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두고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3월 23일까지로, 연임을 위해서는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에 조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은 지분 공동 보유 계약을 통해 31.98%(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의결권 유효 지분)의 지분을 확보하고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주연합 측이 제안한 한진칼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안건이 이번 주총에서 상정, 통과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주총에선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강화돼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는 최대 6년(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됐다. 그간 장기 연임하던 사외이사들의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새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18명이다. 이중 중견·중소기업이 494개사(87.3%), 615명(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달 주총 개최를 앞둔 셀트리온은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올해 주총회에서 바꿔야 하며 삼성SDI의 경우 현직 사외이사 4명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양성운 기자 ysw@